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임양미¹⁾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Monitoring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ediating Role of Ego-Resilience

Lim, Yangmi¹⁾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direct effects of parental support and monitoring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nd the mediating role of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s, under the condition of controlling foreign mothers' Korean language abilities. We used data from 1,325 1st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o participated in the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urvey(MAPS) administer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NYPI).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parental support and monitoring directly and positively related with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nd the direct effect of parental support on the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as greater than that of parental monitoring. In addition, the adolescents' ego-resilienc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monitoring, and their school adjustment. Finally, we recommended the roles of parent education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in supporting school adjustment and elevating ego-resilience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Key words: 부모 지지(parental support), 부모 감독(parental monitoring),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학교생활적응(school adjustment), 다문화 청소년(multicultural adolescents)

1) 교신저자: Lim, Yangmi, Jeonju University,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 Jeonbuk, 55069, Republic of Korea
Tel: 063-220-2338, Fax: 063-220-2053, E-mail: ym68@jj.ac.kr

I. 서론

2000년대 초반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이주자가 늘어나면서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다. 다문화 가정의 범위는 외국인 근로자 및 국제결혼 가정, 새터민 가정을 포괄하고 있으나 정책적 관심이 집중된 대상은 주로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형성한 국제결혼 가정이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은 전체 결혼이주자의 대부분(81.9%)을 차지한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및 문화적 적응을 다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e.g., Cho & Hyun, 2012; Kim & Kim, 2016),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및 결혼만족도, 자녀양육은 가족구성원 및 사회적 지지, 한국어능력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이주하면서 경험하는 문화적 적응, 부족한 한국어능력 등은 양육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로 발달 초기에 해당되는 영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탐색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e.g., Kim & Lim, 2019).

한편 최근 몇 년 동안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다문화 청소년¹⁾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정 자녀 수는 2018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76,181명, 중학교 13,599명, 고등학교 8,361명으로(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8), 학교급이 내려갈수록 다문화 가정 자녀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중학교 시기는 발달적 변화와 더불어 초등학교와 다른 학교환경에 대한 적응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자율성 및 자기결정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반면 학업에 대한 교사 및 부모의 관심과 제재가 심해지고(Yoo, 2008), 수업이 주로 학급단위로 진행되며 학교 성적에 대한 압박 및

사회적 비교가 심화된(Park & Lee, 2017).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 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나, 일부 학생들의 경우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실패 및 중도이탈 등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Yoo, 2008).

다문화 청소년은 비 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적응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제기되어져 왔다. Park과 Oh(2014)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비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학교수업 방식의 변화, 학업성취에 대한 요구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외, 문화적 배경이 다른 부모로 인해 갈등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성장하면서 외국 출신의 부모 또는 모와 학교생활에 대한 의사소통 및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사회적 차별 및 편견에 노출되어 있어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이 더 어려울 수 있다(Park & Lee, 2010; Park & Lee, 2019). 또한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은 소득 수준이 낮고 주거환경과 교육적 지원 또한 열악하므로, 이러한 현실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Park & Oh, 2014). 이를 증명하듯이 다문화 중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08%로, 비 다문화 중학생의 학업중단율보다 3배 이상 높았으며(Lee & Park, 2017), 학교급 및 학년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 Oh, 2014). 그러나 몇몇 연구들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반드시 비 다문화 학생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Kim과 Moon(2013)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과 비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Jun(2008)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비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 보다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여러 연구들(e.g., Go & Kim, 2018; Park & Lee, 2019)을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유발하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이 보고됨에 따라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적응

1) 본 논문에서 다문화 청소년(또는 아동, 학생)으로 표기된 경우, “다문화”는 주로 외국인 모와 한국인 부모 구성된 국제결혼 가정의 청소년기(또는 아동기) 자녀 또는 가족 내 부모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자녀를 의미하며, 이후 이러한 의미가 동일하게 적용됨

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변인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은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우선 부모는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 변인으로,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은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가정의 소득 및 부모의 학력과 직업적 지위에 비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기되어져 왔다(e.g., Kim & Kim, 2015; Park & Lee, 2019).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애정, 교육적 지원, 감독 등을 통해 구체화되며, 이러한 측면은 자녀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촉진하는 주요한 자원이 된다(Park & Lee, 2019). 여러 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애정 및 관심, 감독 등은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방임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im & Lee, 2017; Park & Lee, 2010; Sohn, Kim, Park, & Kim, 2012). 또한 자아탄력성은 새롭거나 문제가 있는 환경에서 자아통제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여 목표에 달성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Block & Kremen, 1996), 어렵거나 힘든 환경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유발하는 주요한 심리적 구인이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다문화 학생이 발달적·환경적 위험요인에 노출될 경우 그러한 위험요인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를 입증하듯이 자아탄력성은 다문화 학생 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일관되게 보고되었다(Go & Kim, 2018; Kang, Kim, & Nho, 2012; Seo, 2017).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은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독립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 매개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즉, 부모의 애정 및 관심, 감독, 방임 등과 같은 양육행동은 자아탄력성과 관계가 있으며(Jeong & Kim, 2017; Lim, 2013, 2018),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된 선행 연구결과들(Go & Kim, 2018; Kang et al., 2012; Seo, 2017)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아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

동은 자녀의 자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구인(예: 자아탄력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심리적 속성은 궁극적으로 자녀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다(Lim & Lee, 2017). 이러한 점은 비 다문화 중학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여러 연구들(Ki & Kim, 2014; Noh, Heo, & Choi, 2015)을 통해 자아탄력성이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으로 학교생활적응이 주요한 발달적 과업으로 대두되는 중학교 시기에 비 다문화 학생과 다른 가정환경으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 간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경로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비록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한 소수의 연구들(Han, 2012; Kim & Lee, 2013)이 존재하나, 초등학교와 다른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주요한 발달과업으로 대두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변인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입증한 시도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로 진입함으로써 발달적 변화가 발생하고, 초등학교에 비해 학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며, 수업방식 및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시작되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수집된 다문화 청소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동시에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이 주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제기되는 시점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주로 초등학생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6), 본 연구는 대규모의 국가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경험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토대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지지 및 감독,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에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은 자아탄력성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청소년과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아동 및 청소년 연구 분야에서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는데, 그 이유는 학교가 학업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Un, 2010).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는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전환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학교생활적응은 주요한 심리·사회적 적응의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Un, 2010). 학교생활적응은 수업 및 학습활동,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 등에서의 적응을 포괄한다(Hwang & Park, 2010).

다문화 가정은 소득 수준이 낮고, 주거 및 교육환경이 열악할 가능성이 높으며(Seol & Yoon, 2008), 자녀들은 정체성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Kim & Yang, 2012). 다문화 청소년들은 부족한 한국어실력과 외모로, 학습부진과 따돌림 등을 경험하고, 인종차별적 대우도 일어나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 가정에서 맞벌이 부모가 장시간 노동에 종사함으로써 자녀가 홀로 집에 방치되는 경우도 많아 가정과 학교에서 이중고를 경험할 수 있다(Park & Oh, 2014).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다문화 중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08%로 비 다문화 중학생의 학업중단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업 중단 이유의 친구관계, 학교생활 및 문화적응 문제, 질병, 학업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나타났다(Hong & Park, 2017; Lee & Park, 2017).

그러나 몇몇 연구를 통해 비 다문화 가정 자녀와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Kim과 Moon(2013)의 연구결과,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비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Jun(2008)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비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학생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변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부모의 양육행동 및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여러 연구들을 통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적 속성(예: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g., Go & Kim, 2018; Kang et al., 2012; Park & Lee, 2019). 본 연구에서 선정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선행 연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학업성적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 Sohn 외(2012) 및 Park과 Lee(2010)의 연구결과, 부모의 애정 및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졌으며, Lim과 Lee(2017)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다문화 청소년 수가 증가하며 학교생활적응이 주요한 현안으로 제기되면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을 규명하는 시도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ark과 Lee(2019)는 다문화 중학생의 부모와의 관계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개념화하여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으로, 신뢰롭고 친밀한 타인과 형성하는 관계의 양과 질로 측정된다(Coleman, 1990). 특히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은 부모와 자녀의 대화 빈도와 수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애정, 부모의

교육적 지원 및 기대, 감독과 훈육 등을 통해 평가되며, 이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제시되어져 왔다. 다문화 청소년은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부족할 수 있다 (Yang, Park, & Kim, 2013). 구체적으로 외국 출신의 부모 또는 자신의 한국어능력에 비해 자녀들의 한국어능력이 성장과 함께 더 향상되어 심도 있는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며, 학교생활지원에 한계가 발생함으로써 자녀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Park & Lee, 2019). 실제로, 다문화 가정 자녀는 비 다문화 가정 자녀에 비해, 부모에 대한 신뢰, 의사소통 및 애착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Nam & Lee, 2009), 부모와의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아졌다(An, Lee, & Lim, 2013).

여러 연구들(Kim, 2011; Kim & Kim, 2015; Park & Lee, 2019)을 통해 부모의 학력 및 가정의 소득 수준,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부모의 학력 및 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는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im과 Kim(2015), Park과 Lee(2019)의 연구결과, 다문화 청소년이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주며,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가정의 소득수준 및 부모의 학력수준이 낮더라도 자녀가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며 높은 학업성취 수준을 보였다. 또한 Seo(2017)의 연구결과 부모양육행동 요인 중 자율-통제 및 합리-비합리 차원에 비해 애정-적대 및 성취-비성취 차원이 학교생활적응을 더 잘 예측함으로써 부모 양육행동 요인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이 제시되었다.

한편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을 강조한 연구들도 있다. I와 Rhee(2014)는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적 관여와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중학생 자녀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몇몇 연구들(e.g., Yang, Kim, & Kim, 2013)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은 대체로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위해 학교활동에 참여하고, 또래관계 형성에 노력하며 자녀의 학습이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아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봄으로써 가정된다.

우선 부모의 애정 및 관심,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Lim, 2013), 부모의 확대와 방임은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Lim, 2018). 한편 Jeong과 Kim(2017)의 연구결과 부모의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방임은 모두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부모의 애정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 강도가 가장 강하였다. 청소년은 신체적·정서적으로 다양한 발달적 변화를 경험하고 가중된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새롭거나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해석과 긍정적인 적응과 관련된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실제로,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대체로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Kim & Hwang, 2012), 한부모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Kang et al., 2012)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에서도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주요한 심리적 자원이라는 점이 일관되게 보고되었으며(Go & Kim, 2018; Kim & Lee, 2013; Seo, 2017), 특히 Go와 Kim(2018)의 연구결과 자아탄력성이 자아존중감에 비해 다문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러 연구들(Ki & Kim, 2014; Noh et al., 2015)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관계가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과보호, 애정 및 합리적 설명 등의 양육행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탄력성을 통해 매개되었다. 그러나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복합적인 경로를 규명한 연구는 드물다. Kim과 Lee(2013)는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또한 Han(201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Kim과 Lee(2013), Han(2012)의 연구는 모두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수행됨으로써,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가정 내 지원과 도움이 더 요구되는 중학교 시기의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직·간접 경로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실시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에 참여한 다문화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 된 시점에서 측정된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NYPI Youth and Children Data Archive, 2019).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는 2013년에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되었다.

본 연구는 4차년도 자료 중 어머니가 외국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인 학생 1,325명(남학생: 648명, 여학생: 677명)의 자료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 배경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우선 연구대상 어머니의 출신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Sex	Male	648	(48.9)
	Female	677	(51.1)
	Totals	1,325	(100.0)
Mothers' countries of origin	China	95	(7.2)
	Ethnic Koreans in China	259	(19.5)
	Philippine	344	(26.0)
	Japan	469	(35.4)
	Others(Vietnam, Taiwan, etc.)	158	(11.9)
	Totals	1,325	(100.0)
Fathers' education	Less than graduation of middle school	391	(31.0)
	Graduation of high school	665	(52.7)
	Graduation of college	84	(6.7)
	Higher than graduation of university	123	(9.7)
	Totals	1,263	(100.0)
Mothers' education	Less than graduation of middle school	150	(11.3)
	Graduation of high school	618	(46.6)
	Graduation of college	344	(26.0)
	Higher than graduation of university	213	(16.1)
	Totals	1,325	(100.0)
Mothers' Korean language abilities	Low level	33	(2.5)
	Middle level	223	(16.8)
	High level	1,069	(80.7)
	Totals	1,325	(100.0)

국은 일본(35.4%)과 필리핀(26.0%)이 가장 많았다. 부모 최종 학력의 경우,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52.7%)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31.0%)이 많았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46.6%)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도 42.1%로, 아버지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다. 한편 아버지의 경우 대부분(83.3%)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농림·어업 종사자(19.8%) 및 장치·기계조립 종사자(15.7%), 단순노무 종사자(13.9%)가 가장 많았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 과반수 정도(56.9%)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문직 종사자(17.4%) 및 단순노무 종사자(9.4%)가 가장 많았다. 또한 본 연구대상 가정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239.2만원($SD=120.073$)이었다. 외국인 어머니의 전반적인 한국어능력 수준은 평균 3.26($SD=.54$)으로 가능한 점수범위(1-4 점)를 고려해 볼 때 높은 수준이었으며, 평균을 중심으로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이 대부분(80.7%)이었다. 그리고 한국어능력 하위 영역별 분석 결과, 듣기($M=3.36, SD=.58$), 말하기($M=3.36, SD=.57$) 수준에 비해 읽기($M=3.24, SD=.63$), 쓰기($M=3.08, SD=.68$) 수준이 낮았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은 Min(1991)의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척도는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나는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일부 문항은 역채점을 수행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하위영역별 점수범위는 각각 5~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활동,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에

서 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시, 학교생활적응의 지표로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전반적인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며, 학습활동의 경우 .77, 교우관계의 경우 .60, 교사관계의 경우 .88이었다.

2) 부모 양육행동: 부모 지지, 부모 감독

부모 양육행동은 다문화 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지지와 감독으로 측정되었다. 다문화 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Hernandez(1993; as cited in Kim, 2001)의 학업관련 사회적 지지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한 Kim(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부모 감독의 경우 Huh(200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 지지 척도는 “부모님은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많이 해주신다.”와 같이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기대와 관련된 총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지며, 부모 감독 척도는 “부모님은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와 같이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 및 감독과 관련된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두 척도의 문항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그대로 채점하였다. 부모 지지 척도의 점수범위는 6~24점, 부모 감독 척도의 점수범위는 3~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이 부모의 지지와 감독 수준을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부모 지지와 감독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91, .87이었다.

3) 자아탄력성

다문화 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과 Kreman(1996)이 개발한 척도를 Yoo와 Shim(2002)이 번역한 뒤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총 14개의 문항(예: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모든 문항은 그대로 채점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의 점수범위는 14~5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시, 자아탄력성의 지표로

전체 문항을 합산(parceling)한 총점을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91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0과 AMO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우선 연구대상의 배경과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문항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문제인 부모의 지지와 감독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시, 모델 적합도는 표본크기에 대한 민감성, 모델의 간명성 등을 고려해서 comparative fit index(CFI), normed fit index(N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root mean square residual(RMR)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FI와 NFI의 경우 .9 이상, RMSEA의 경우 .08 이하, RMR의 경우 .05 이하의 경우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Kline, 2011; Woo, 2012). 또한 부모의 지지와 감독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간접적 영향)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절차를 적용하였다.

한편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 외, 선행연구들(Kim, 2011; Kim & Kim, 2015; Park & Lee, 2019)에서 제시된 가정의 소득, 부모학력,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학교생활적응(학교생활적응의 평균점수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부모학력 수준(중졸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에 따라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경우 한국어능력 점수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3 수준(상, 중, 하)으로 구분하여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비교하였다. 일원

분산분석 결과, 가정의 소득 수준과 부모학력 수준에 따라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변인들을 통계변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어머니 한국어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F=23.882, p<.001$)를 유발함으로써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시, 통계변인으로 투입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과 상관관계

본 연구의 측정변인인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지지, 부모 감독,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의 문항평균(M)과 표준편차(SD)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다문화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 지지와 부모 감독의 문항평균은 각각 3.19($SD=.53$), 3.21($SD=.61$)로 가능한 점수범위(1~4점)를 고려해 볼 때,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문항평균은 3.06($SD=.46$)으로 가능한 점수범위(1~4점)를 고려해 볼 때,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들의 문항평균은 2.91($SD=.56$)~3.17($SD=.46$)로 학습활동의 문항평균이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에 비해 다소 낮았다. 본 연구의 자료가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시 요구되는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 가정을 충족시키지는 알아보기 위해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검증해 본 결과(Woo, 2012), 모든 변인들은 West, Finch와 Curran(1995)의 기준(왜도 절대값 < 2, 첨도 절대값 < 7은 정상성 의미)과 Kline(2011)의 기준(첨도 절대값 < 10은 정상성 의미)을 충족시켰다.

한편 측정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Table 2> 참조), 부모 지지와 감독은 모두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부모 지지와 감독은 자아탄력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 간의 관계 또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

Table 2.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and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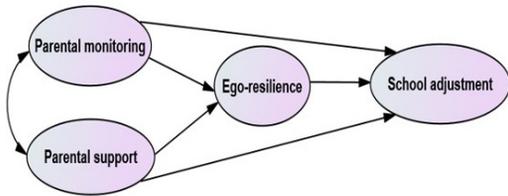
Variables	1	2	3	4	5	6
1. Parental support						
2. Parental monitoring	.51**					
3. Ego-resilience	.45**	.38**				
School adjustment	4. Learning activities	.50**	.42**	.53**		
	5. Peer relationship	.44**	.35**	.66**	.58**	
	6. Teacher relationship	.42**	.33**	.53**	.50**	.53**
M	3.19	3.21	3.06	2.91	3.17	3.10
SD	.53	.61	.46	.56	.46	.56
Skewness	-.30	-.42	.23	-.04	-.10	-.21
Kurtosis	.70	.24	-.05	.17	.51	.31

** p < .01.

Table 3. The model fit comparison result

Model	χ^2	df	CFI	NFI	RMSEA	RMR
Partial mediation(suggested model)	222.684	70	.985	.978	.041	.028
Full mediation(rival model)	368.511	72	.971	.964	.056	.065

Suggested model



Rival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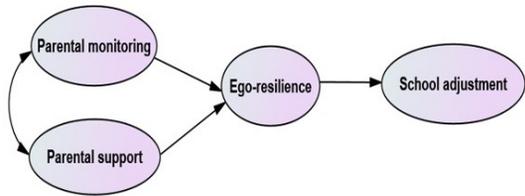


Figure 1. The comparison of models

2.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연구모델의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가 유의한 수준으로 보고됨으로써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지지와 감독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간접적 영향)를 동시에 알아보는 부분 매개모델을 제안모델로 설정

하되, 부모의 지지와 감독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자아탄력성의 완전 매개모델을 경쟁모델로 설정하여 두 모델을 비교하였다(<Figure 1> 참조). 두 모델의 적합도 분석 결과, 완전 경쟁모델 및 부분 매개모델 모두 CFI, NFI, RMSEA, RMR 적합도 수치가 비교적 양호하나 부분 매개모델(제안모델)이 적합도 수치가 더 우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Table 3> 참조). 또한 두 모델 간 χ^2 통계량의 차이($\Delta\chi^2 = 145.827$, $\Delta df = 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 < .001$)으로 나타났는데, 즉, 부분 매개모델에 비해 부모의 지지와 감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경

로가 삭제된 완전 매개모델의 χ^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됨으로써 모델적합도가 저해되었다²⁾. 따라서 부모의 지지와 감독이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를 포함한 부분 매개모델을 최종 모델로 선택하였다.

한편 최종모델의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결과, 5개의 경로가 모두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참조). 우선 부모의 감독($\beta=.09, p<.01$)과 지지($\beta=.26, p<.01$)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감독($\beta=.21, p<.01$)과 지지($\beta=.36, p<.01$)는 각각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자아탄력성($\beta=.64, p<.01$)은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감독과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적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부모의 감독($\beta=.14, p<.01$)과 지지($\beta=.24, p<.01$)가 자아탄력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됨으로써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그리고 부모의 감독과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총 영향력의 크기는 각각 .23, .5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부모의 감독 및 지지는 모두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부모의 지지가 감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이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도 보고됨으로써 자아탄력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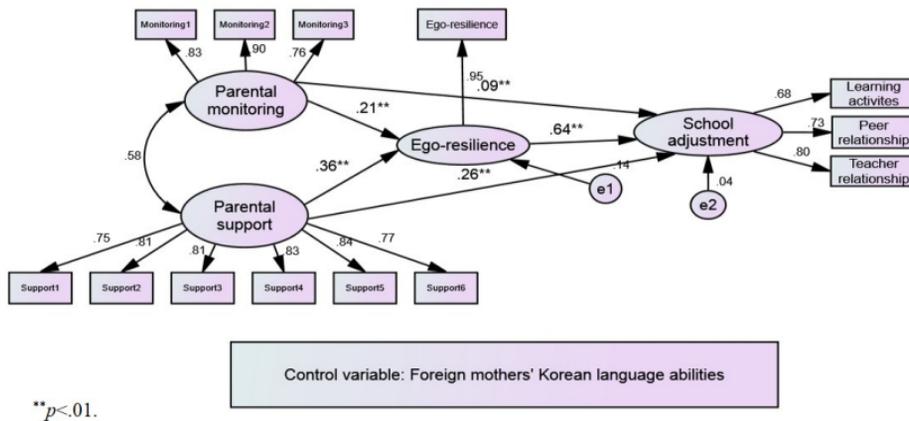


Figure 2. The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n=1,325$)

Table 4. The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among research variables ($n=1,325$)

Path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s
Parental monitoring → School adjustment	.09**	.14**	.23**
Parental support → School adjustment	.26**	.24**	.50**
Parental monitoring → Ego-resilience	.21**	-	.21**
Parental support → Ego-resilience	.36**	-	.36**
Ego-resilience → School adjustment	.64**	-	.64**

**p<.01.

2) χ^2 의 수치가 클수록 적합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Woo, 2012).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지지와 감독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주요결과를 논의하고, 교육현장에서 다문화 학생을 지도하는데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계 분석결과, 부모의 지지와 감독은 모두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애정 및 관심, 감독 등이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Park & Lee, 2010; Sohn et al., 2012)과 일관된다. 또한 부모의 지지 및 감독과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간에 정적인 관계가 제시된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애정과 관심, 감독 등과 자아탄력성 간의 정적인 관계를 규명한 Lim(2013)의 연구결과와 일관되며,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 또한 여러 선행연구들(Go & Kim, 2018; Kang et al., 2012; Kim & Lee, 2013; Seo, 2017)을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구조방정식모델 분석결과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들(Ki & Kim, 2014; Kim & Lee, 2013; Noh et al., 2015; Han, 2012)과 동일한 흐름이다. 중학교 시기는 학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초등학교에 비해 교사와의 친밀감 수준이 낮아지고 또래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자녀 교육 및 학습에 대한 부모의 지원과 관심,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감독 및 관리수준은 직접적으로 다문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새롭고 도전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성공적 적응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인 자아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이

제시되었다.

한편 본 연구결과와 부모의 감독에 비해 부모의 지지가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 친밀감을 보이며 자녀에 대한 애정 및 관심 수준이 높고 성취에 대한 격려를 많이 하는 것이 자녀의 행동에 대해 간섭하고 감독하는 것에 비해 자녀의 자아탄력성을 예측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Lim(2013)과 Seo(2017)의 연구결과와 일관되며, 다문화 가정 내 가족의 지원과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입증한 Yu와 Ok(2013)의 연구와도 흐름을 같이 한다. 부모의 지지가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결과는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원 이론(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theory)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그 상황을 다루는 방식을 줄여줌으로써 스트레스가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buffering)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Cohen & Wills, 1985).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이 이론을 적용해 보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감독과 제재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심리적·도구적 지원과 도움을 부모로부터 많이 받고 인식할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동시에 변화된 학교생활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측면과 관련된 자아탄력성 수준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Kim, 2011; Kim & Kim, 2015; Park & Lee, 2019)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배경변인(가정의 소득, 부모학력,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에 대한 사전 분석결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을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시, 통제변인으로 투입함으로써 연구결과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상황에서, 부모의 감독과 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이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다문화 학생을 지도 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된다. 우선 중학교 1학년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해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같이 국제 결혼가정 양육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대상이 주로 영유아기 및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관과 중·고등학교가 연계해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수행하는 협력적 시도가 필요하다. 더욱이 아버지 보다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며(Lee, 2019),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효능감에 배우자의 지지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Kim과 Kim(2016)의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다문화 가정 부모에게 긍정적인 가족관계 및 양육행동을 조장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예: 가족상담)도 적극적으로 소개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 가정의 자아탄력성은 가족의 지지 외, 친구 및 교사의 지지와도 관련되므로(Kim & Yun, 2018), 교사는 다문화 학생이 학교생활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가정과 교과는 가족환경 등에서 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중학생의 경우 가정과 교과외의 청소년 발달 및 자기관리 영역에서 친구관계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내용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과 교사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학급 교우와 서로간의 장점을 교환해 보며,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수집해 봄으로써(Lim, 2013) 다문화 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이 다문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탄력성을 통해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동시에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한 시사점을 도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우선 본 연구는 부모의 감독 및 지지가 다문화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규명함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별도로

분석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행동이 각각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해 보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측정된 변인들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학교 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양육행동의 시간적 변화와 더불어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이 발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면, 변인들 간의 인과적 경로 또한 함께 규명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 적응과 양육에 대한 다른 가족구성원 및 타인의 지원이 자녀의 심리적 속성(예: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규명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가정과 학교를 연계한 현실성 있는 제도적 지원 수립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n, S.-J., Lee, H.-C., & Lim, J.-Y. (2013). The influences of conflict with parents,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2), 77-91. doi:10.7466/JKHMA.2013.31.2.077
- Block, H.,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Cho, I. J., & Hyun, A. N. (2012). Structural relations among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Based on the theory of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40*(1), 177-206.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 310-357. doi:10.1037/0033-2909.98.2.310
- Coleman, J. S. (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University of Harvard Press.
- Go, E., & Kim, S.-H. (2018). The effect of bilingual ability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on school life adapta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Bilingual Research*, 72, 1-23. doi:10.17296/korbil.2018..72.1
- Han, H. S. (2012). *The relations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y and the moderating of effect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Hong, N.-M., & Park, H.-J.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the influence of parents' neglect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8(2), 125-151.
- Hwang, S.-D., & Park, E. (2010). The effect of parental attitude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6(4), 123-145.
- Huh, M. Y. (200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I, E.-J., & Rhee, C.-W. (2014). Mother's educational involvement impacts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child bonding-.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9, 433-455.
- Jeong, S., & Kim, J. (2017). The relations of parenting behaviors to ego resiliency amo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8(3), 253-270. doi:10.15703/kjc.18.3.201706.253
- Jun, K. (2008).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teenagers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normal family in Gyeonggi Prefecture: Based on school life and family lif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6(1), 167-185.
- Kang, B. J., Kim, E. H., & Nho, C. R. (2012).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resiliency among father-headed families and mother-headed famili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3, 29-50.
- Ki, M.-H., & Kim, M.-S.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overprotection, children's ego-resilience and school life adjustment: Focused on 4th, 5th and 6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Social School Work*, 29, 585-612.
- Kim, G.-H., & Hwang, E.-H. (2012). The relations among stress,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of high school girl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10), 4660-4668. doi:10.5762/KAIS.2012.13.10.4660
- Kim, H., & Lim, Y. (2019). Relationships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multicultural attitudes and multicultura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ediating role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5(1), 113-134. doi:10.18023/ijece.2019.25.1.006
- Kim, H., & Moon, H. (2013). School adjustment: Compari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ren of non-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5(4), 7-31. doi:10.20970/kasw.2013.65.4.001
- Kim, H. J. (2011). Identifying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 adjustment: A comparative study of poor and non-poor childre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0, 1-22.
- Kim, M., & Yun, K. (2018).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mediating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ego-resiliency.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3(1), 373-388. doi:10.21097/ksw.2018.02.13.1.373
- Kim, M.-K., & Kim, H.-Y. (2015).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oping strategies on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2), 367-385. doi:10.13049/kfwa.2015.20.2.367
- Kim, S.-G. (2001). *The important factor of school dropout: Based on the rural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 Kim, S.-K., & Yang, K.-M. (2012). The Study on the factors which

- affect the ego-resiliency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1), 147-176.
- Kim, S.-O., & Kim, H. (2016). Effects of support from spouse and family on the child rearing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6), 462-473. doi:10.5392/JKCA.2016.16.06.462
- Kim, Y. C., & Lee, K. S. (2013). The research for the family function, ego-resilience and school life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3(1), 21-38.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n, New York, NY: Guilford.
- Lee, H., & Park, M. (2017). *The educational support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Seoul*. Seoul: The Seoul Institute.
- Lee, J.-C. (2019). The effect of parent's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depression, self-esteem, and school adaptability o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5(2), 877-897. doi:10.24159/joec.2019.25.2.877
- Lim, Y. (2018).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male · female high school students' ego-resilience and self-esteem: Moderating roles of peer attachment and closeness to teache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0(2), 57-75. doi:10.19031/jkheea.2018.06.30.2.57
- Lim, Y., & Lee, O. (2017).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maltreatment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and peer attachm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2), 393-404. doi:10.1007/s10826-016-0573-8
- Lim, Y.-M. (2013). Exploration of variables effecting on poor adolescents' self-resilience and self-esteem: Focusing o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 quality of peer and teacher relationship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5(2), 147-167.
- Min, B. S. (1991). *Effect of school adjustment and self-concept on school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8). *Education statistics*. Chungbuk: Author.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6).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Seoul: Author.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 *Population statistics*. Sejong-si: Author.
- Nam, Y. J., & Lee, S. (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mother's attachment, self-concept, daily stress, depress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and typical Korean families.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0(3), 357-367.
- Noh, M., Heo, M., & Choi, Y. S. (2015).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e and car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2), 119-134. doi:10.7466/JKHMA.2015.33.2.119
- NYPI Youth and Children Data Archive (2019).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Sejong-s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Park, H., & Oh, S.-B. (2014). A study of school adaption of multicultural students at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level. *Korean Education Inquiry*, 32(2), 35-57.
- Park, H.-H., & Lee, Y. J. (2019). Mediating effects of multicultural ident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5(1), 725-743. doi:10.24159/joec.2019.25.1.725
- Park, K.-R., & Lee, J.-M. (2010).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influencing adjustment to school life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Daegu Gyeongbuk Area.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9(6), 981-991.
- Park, Y.-H., & Lee, S.-D. (2017). Exploring the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during elementary to middle-school transition for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Education Inquiry*, 35(4), 1-19. doi:10.22327/kei.2017.35.4.001
- Seo, B.-J. (2017). The mediation effect of self-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aring attitude and school life adjustment perceived by multicultural family teenager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4(3), 111-133.
- Seol, D. H., & Yoon, H. S. (2008). Socioeconomic adaptation and welfare policy for immigrant women on marriag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countries of origin.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4(2), 109-133.

- Sohn, B.-Y., Kim, S.-J., Park, J.-A., & Kim, Y.-H. (2012). The effects of desirable parenting attitudes upon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ce: The mediating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and ego-resilience and multiple group analysis across gender. *Studies on Korean Youth*, 23(1), 149-173.
- Un, S.-K. (2010).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of bicultural children: Focused on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3, 37-74.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 Woo, J. P. (2012). *Concepts and knowledg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Hanarae Academy.
- Yang, S.-N., Kim, W.-Y., & Kim, Y.-O. (2013). A study on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experience of child rearing.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8(1), 71-94.
- Yang, S.-Y., Park, S.-K., & Kim, M.-S. (2013). Effects of bicul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capital on psychological adapt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6), 270-282. doi:10.5392/JKCA.2013.13.06.270
- Yoo, S. (2008). Factor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freshm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7), 157-180.
- Yoo, S. K., & Shim, H. W. (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189-206.
- Yu, B. A., & Ok, K. H. (2013).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school adjustment, emotional regulation, and socia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4), 511-538. doi:10.13049/kfwa.2013.18.4.511

<국문요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을 통제된 상황에서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대상은 다문화 가정의 중학교 1학년 자녀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 청소년 패널자료 중 어머니가 외국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 중학교 1학년 자녀의 자료(1,325명)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 자료에 대해 IBM SPSS 25.0 및 AMO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일원분산분석,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부모의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모 감독의 영향력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지지 및 감독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모두 매개함으로써 부분 매개효과가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다문화 가정 중학교 1학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부모의 양육행동 및 자아탄력성의 영향이 규명됨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수준을 높이고, 학교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기관이 연계한 부모교육 실시의 필요성 및 가정과 교과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논문접수일자: 2019년 7월 19일, 논문심사일자: 2019년 7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9월 26일